



즉시 배포용: 2019년 6월 6일

ANDREW M. CUOMO 주지사

CUOMO 주지사, 혐오 범죄 태스크포스(HATE CRIMES TASK FORCE)에 베이리지(BAY RIDGE) 우편함의 반유대주의 낙서 수사 지원 지시

"우리 주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반유대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어 신물이 납니다. 이번에는 '모든 유대인을 죽여라', '이스라엘', 'Mario Cuomo' 같은 단어가 브루클린 베이리지(Bay Ridge) 우편함에 써있었습니다. 혐오 발언 및 위협하는 말은 우리 주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. 낙서가 신고된 후 해당 우편함은 즉시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.

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. 우리는 한계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비열한 폭력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. 주정부는 편협성과 심한 편견에 맞선 싸움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혐오적 말을 내뱉고 주 전역에 공포를 확산시키려 하는 이들에게 맞설 것입니다.

우리는 뉴욕 주민이자 국민으로서 반유대주의 및 모든 형태의 혐오를 고발해야 합니다. 저는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부(New York State Police Hate Crimes unit)에 뉴욕시 경찰(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, NYPD)을 도와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합니다.

우리 주의 기반을 흔드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의 안전과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